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 조사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서울기독병원 가정의학과

김영미 · 민대홍 · 이상화

민중병원 가정의학과

조 동 영

— Abstract —

A Survey on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Family Medicine in Patients Admitted in Seoul Christian Hospital

Young Mi Kim, M. D., Dae Hong Min, M. D., Sang Hwa Lee, M. 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eoul Christian Hospital

Dong Young Cho, M. 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Minjoong Hospital

For a baseline survey on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family medicine among patients admitted in Seoul Christian Hospital, a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during the period of April 1 through May 31, 1990. Among 300 patients, 224 patients responded the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is survey were as follows:

1. Total number of samples were 224. Among them male population was 134(59.8%) and female population was 90(40.2%).
2. The rate of respondents who have ever heard about family medicine was 71.9% and most of them it from the mass media.
3. The rate of respondents who thought that family medicine is necessary for the Korean medical system was 90.6%.
4. The rate of respondents who will register to family physician for their medical care was 83.5%.

I. 서 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전국민 의료보험인 실시로 일반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의료는 이제 단순한 의료수혜의 단계에서 벗어나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종합적인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지속적이며 포괄적으로 가족을 돌보아 주는 가족 주치의의 필요로 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1,2,3)}.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60년대부터 도입된 미국식 단과전문의 제도를 중심으로 질병의 진단 및 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지만 환자를 인격을 가진 전인체로 간주하기 보다 단순히 의료의 대상물로만 보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또한 환자의 질병을 쪼개어 구분하고 치료하는 가운데 전체로서의 인간과, 가족 및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을 보는 교육이 부족하게 되어 의료 소비자인 일반대중과 의료인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기게 되었다^{4,5,6)}.

그리고 의료전달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경한 질환까지도 종합병원을 찾으므로써 의료전달 체계상 큰 혼란을 야기하였다⁴⁾. 이러한 현대의학의 모순점과 복잡 다원화된 의료전달 체계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의학의 역할이 더 강조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부터 가정의학 체도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10여년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하나의 전문과목으로 자리를 굳혀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다.

최근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 및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 등 의료체도의 많은 변화속에서 가정의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금, 가정의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한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인들의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의 변화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가정의학이 더욱 발전하는데 자료로 삼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1990년 4월 1일부터 동년 5월 31일 까지 서울기독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 300명을 대

상으로 가정의학에 대한 설명이 삽입된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이들에게 나누어준 후 회수된 2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유의성 검증은 X²-검정으로 각 특성에 따른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방식으로 컴퓨터로 분석하였다.

III.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 224명에 대한 성별 분포는 남자가 134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수(%)	
성 별	남	134(59.8)
	여	90(40.2)
연령별	19세 이하	11(4.9)
	20-29	73(32.6)
	30-39	68(30.4)
	40-49	32(14.3)
	50-59	26(11.6)
학력별	60세 이상	14(6.3)
	국졸 이하	34(15.2)
	중졸	42(18.8)
	고졸	108(48.2)
	대졸 이상	40(17.9)
직업별	학생	19(8.5)
	공무원	10(4.5)
	회사원	71(31.7)
	가정주부	50(22.3)
	개인업	29(12.9)
	기타	45(20.1)
	월수입별	25만원 미만
25-50만원		85(38.0)
50-80만원		60(26.8)
80-120만원		24(10.7)
120만원 이상		3(1.3)
결혼상태	미혼	69(30.8)
	기혼	152(67.9)
	동거	3(1.3)
계	224(100.0)	

명(59.8%), 여자가 90명(40.2%)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73명(32.6%), 30대가 68명(30.4%), 40대가 34명(14.3%), 50대가 26명(11.6%), 60세이상은 14명(6.3%)으로 20대와 30대가 많았다. 학력은 국졸이하가 34명(15.2%), 중졸이 42명(18.8%), 고졸이 108명(48.2%), 대졸이상 40명(17.9%)이었다. 직업별 분포는 회사원 71명(31.7%), 가정주부 50명(22.3%), 개인업 29명(12.9%), 학생 19명(8.5%), 공무원 10명(4.5%), 기타 45명(20.1%)이었다. 평균 월수입은 25만원-50만원이 85명(38.0%), 50만원-80만원이 60명(26.8%), 25만원 미만 52명(23.3%), 80만원-120만원이 24명(10.7%), 120만원 이상이 3명(1.3%)이었다.

결혼관계는 기혼자가 152명(67.9%), 미혼자가 69명(30.8%), 동거 3명(1.3%)이었다(표 1).

2. 가정의학에 대한 지식

표 2-1. 가정의학에 대한 지식

일반적 특성		안	다	모	른	다	계(%)
성 별	남	100	(74.6)	34	(25.4)	134	(100.0)
	여	61	(67.8)	29	(32.2)	90	(100.0)
연령별	19세 이하	7	(63.6)	4	(36.4)	11	(100.0)
	20-29	55	(75.3)	18	(22.7)	73	(100.0)
	30-39	52	(76.5)	16	(24.5)	68	(100.0)
	40-49	23	(71.9)	9	(29.1)	32	(100.0)
	50-59	19	(73.1)	7	(26.9)	26	(100.0)
	60세 이상	5	(35.7)	9	(64.3)	14	(100.0)
학력별*	국졸이하	13	(38.2)	21	(61.8)	34	(100.0)
	중졸	27	(64.7)	15	(35.3)	42	(100.0)
	고졸	84	(77.8)	24	(22.2)	108	(100.0)
	대졸이상	37	(92.5)	3	(7.5)	40	(100.0)
월수입별	25만원 미만	34	(65.4)	18	(34.6)	52	(100.0)
	25-50만원	58	(68.2)	27	(31.8)	85	(100.0)
	50-80만원	46	(76.7)	14	(31.8)	60	(100.0)
	80-120만원	21	(87.5)	3	(12.5)	24	(100.0)
	120만원 이상	2	(66.7)	1	(33.3)	3	(100.0)
계		161	(71.9)	63	(28.1)	224	(100.0)

* P<0.01

가정의학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61명(71.95)이 알고 있다, 63명(28.1%)이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74.6%, 여자 67.8%에서 알고있다고 하여 남자가 더 많이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 92.5%, 고졸 77.8%, 중졸 64.3%, 국졸이하에서는 38.2%가 알고있다고 응답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학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p<0.01). 그리고 월수입이나 성별,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1).

가정의학에 대해 알게된 경우는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94명(58.4%), 주위 사람을 통해서 40명(24.8%), 의료기관을 통해서 16명(9.9%), 기타 11명(6.8)으로 나타났다(표 2-2).

3. 가정의학에 대한 태도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가정의학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203명

표 2-2. 가정의학에 대해 알게된 경위

알게된 경위	계(%)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94(58.4)
주의사람들을 통해서	40(24.8)
의료기관을 통해서	16(9.9)
기타	11(6.8)
계	161(100.0)

(90.6%)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1명은 필요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연령별에서는 19세 이하에서, 학력은 고학력일수록 필요도가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3-1).

가정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기는 의료비가 싸진다(61.1%), 가족 주치의가 생겨서 좋다(49.3%), 적절한 자문 및 의뢰를 해준다(32.5%)

표 3-1. 가정의학에 대한 태도

단위 : 수(%)

일반적 특징		필요하다	필요없다 모르겠다	계
성별	남	124(92.5)	10(7.5)	134(100.0)
	여	79(87.8)	11(12.2)	90(100.0)
연령별	19세 이하	11(100.0)	0(0.0)	11(100.0)
	20-29	67(91.8)	6(8.2)	73(100.0)
	30-39	61(89.7)	7(10.3)	68(100.0)
	40-49	30(92.8)	2(6.2)	32(100.0)
	50-59	22(84.6)	4(15.4)	26(100.0)
	60세 이상	12(85.7)	2(14.3)	14(100.0)
학력별	국졸이하	29(85.3)	5(14.7)	34(100.0)
	중졸	35(83.3)	7(16.7)	42(100.0)
	고졸	102(94.4)	6(5.6)	108(100.0)
	대졸이상	37(92.5)	3(7.5)	40(100.0)
월수입별	25만원 이하	46(88.5)	6(11.5)	52(100.0)
	25-50만원	79(92.9)	6(7.1)	85(100.0)
	50-80만원	53(88.3)	7(11.1)	60(100.0)
	80-120만원	23(95.8)	1(4.2)	24(100.0)
	120만원 이상	2(66.7)	1(33.3)	3(100.0)
계		203(90.6)	21(9.4)	224(100.0)

표 3-2. 가정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유	수(%) (=208)
의료비가 절감된다	124(61.1)
단골의사가 생겨서 좋다	100(49.3)
인간적인 진료를 해준다	50(24.6)
이과저과 돌아다니지 않아 좋다	51(25.1)
적절한 자문 및 의뢰를 해준다	66(3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2).

4. 가정의학에 대한 실천도

조사대상자 중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정의학에 등록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187(83.5%)이 등록하겠다고 응답하였고 37(16.5%)이 등록하지 않겠다 또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각 특성에 따른 가정의학에 대한 실천을 보면

표 4. 가정의학에 대한 실천도

수(%)

일반적 특성		등록하겠다	등록하지않겠다 모르겠다	계
성별	남	113(84.3)	21(15.7)	134(100.0)
	여	74(82.2)	16(17.8)	90(100.0)
연령별*	19세 이하	11(100.0)	0(0.0)	11(100.0)
	20-29	64(87.7)	9(12.3)	73(100.0)
	30-39	59(86.8)	9(13.2)	68(100.0)
	40-49	27(84.4)	5(15.6)	32(100.0)
	50-59	17(65.4)	9(34.6)	26(100.0)
	60세 이상	9(64.3)	5(35.7)	14(100.0)
학력별	국졸 이하	27(79.4)	7(20.6)	34(100.0)
	중졸	32(76.2)	10(23.8)	42(100.0)
	고졸	90(83.3)	18(16.7)	108(100.0)
	대졸이상	38(95.0)	2(5.0)	40(100.0)
월수입별	25만원 이하	44(84.6)	8(15.4)	52(100.0)
	25-50만원	69(81.2)	16(18.8)	85(100.0)
	50-80만원	50(83.3)	10(16.7)	60(100.0)
	80-120만원	22(91.7)	2(8.3)	24(100.0)
	120만원 이상	2(66.7)	1(33.3)	3(100.0)
계		187(83.5)	37(16.5)	224(100.0)

* P<0.05

연령별로 19세 이하에서 87.7%, 50-59세에서 65.4%로 나타나 나이가 어릴수록 많은 수에서 가정의학에 등록하겠다고 응답하였다(P<0.05).

학력별로는 국졸 이하에서 79.4%, 고졸 83.3%, 대졸 이상에서 95.0%가 등록하겠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월수입이나 성별,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4).

5. 가정의학과를 통한 전화 상담제도에 대한 필요성

서울기독병원 가정의학과에서는 야간 또는 외래 휴진일에 건강 및 가정문제에 대하여 전화상담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 제도에 관한 응답자들의 인식은 매우 좋은 제도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응답한 사람이 179명(79.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34명(15.2%)은 필요없다고 응답했으

표 5. 가정의학과를 통한 전화 상담제도에 대한 인식

	수(%)
필요하다	179(79.9)
필요없다	34(15.2)
모르겠다	11(4.9)
계	224(100.0)

며 나머지 11명(4.9%)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표 5).

IV. 고 찰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정의학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1.9%로 이는 1983년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윤⁷⁾의 65.5%나 1985년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⁸⁾의 65.6%,

1989년 병원 외래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⁶⁾의 50.0%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의학과가 개설된 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1980년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⁹⁾의 95.6%나 이¹⁰⁾의 93.2%에는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의학을 공부하는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의학과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P < 0.01$) 이는 조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그리고 가정의학과에 대해서 알게된 매스컴을 통해서가 이¹⁰⁾와 최¹¹⁾의 결과에서와 같이 TV, 라디오, 신문 등의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가 58.4%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이 더욱 강구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정의학이 도입된 지 10년을 넘어서는 지금 그동안 인식도의 많은 향상을 보여왔음은 사실이나 가정의학과에 대한 지식의 보편화를 위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홍보방안이 고안되어야 하겠다.

또한 가정의학과에 대한 태도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0.6%로 이는 1983년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윤⁷⁾의 81.2%, 유¹²⁾의 66.3%, 조¹⁸⁾의 79.2%, 최¹¹⁾의 77.0%, 이⁶⁾의 86.1%보다 높은 결과이다.

조⁶⁾는 연령이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저소득층에서 더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월수입별로도 유의한 차이없이 고무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전달 체계가 정착되어 가고있는 지금 전국민적으로 양질의 일차의료를 부여하는 가정의학과의 중요성이 증대되어가고 있는 때문으로 사료되며 또한 앞으로 가정의학의 발전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측면으로 여겨진다.

가정의학과에 대한 실천도는 가입하겠다고 한 경우가 83.5%로 이는 윤⁷⁾의 64.1%, 조⁸⁾의 52.4%, 이⁶⁾의 65.0%보다 월등히 높은 결과였다. 윤⁷⁾의

연구에서는 고학력일수록 실천도가 높았고, 조⁸⁾의 연구에서는 수입이 높을수록 실천도가 높았고 연령별, 학력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어릴수록 실천도가 높았고($P < 0.05$) 학력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연령이 어릴수록 높은 실천도를 보인것은 앞으로 가정의학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고 발전하는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면이라고 여겨진다.

가정의학과를 통한 전화 상담제도에 대해 79.9%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점차적으로 가정의학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특히 이전까지 연구 발표된 결과와는 달리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로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가정의학과에 대한 높은 참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활동과 유능한 일차의료 전문의로서의 가정의학 전문의를 양성하여 일차의료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겠다.

V. 결 론

서울지역의 한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의학과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0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기독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 224명에게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일반적 특성은 성별로는 남자 134(59.8%), 여자 90명(40.2%)이었고 연령별 분포는 20대 73명(32.6%), 30대 68명(30.4%), 40대 34명(14.3%)이었으며, 학력별 분포는 고졸 108(48.2%), 중졸 42명(18.8%), 대졸이상이 40명(17.9%)이었다. 평균 월수입은 25-50만원이 85명(38.0%), 50-80만원이 60명(26.8%)으로 나타났고, 직업별 분포로는 회사원 71명(31.7%), 가정주부 50명(22.3%), 개인업 29명(12.9%)으로 나타났다.

2. 가정의학과에 대해서 161명(71.9%)이 알고 있

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94명(58.4%)이 TV,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게되었다고 응답했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92.5%, 고졸이 77.8%, 중졸이 64.3%, 국졸 이하에서는 38.2%가 알고있다고 응답하여 고학력일수록 가정의학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P < 0.01$). 그리고 월수입이나 성별,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가정의학에 대한 태도는 203명(90.6%)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의료비가 절감된다고 61.6%, 단골의사가 생겨서 좋다가 49.3%, 적절한 자문 및 의뢰를 해준다가 32.5%의 순으로 나타났다.

4. 가정의학에 대한 실천도는 등록하겠다고 187명(83.5%)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9세 이하에서 100.0%, 20-29세에서 87.7%, 50-59세에서 65.4%가 등록하겠다고 응답하여 연령이 적을수록 높은 실천도를 나타냈다($P < 0.05$). 그리고 월수입이나 성별,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5. 가정의학과를 통한 전화 상담제도에 대해서는 79.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다른 연구와 비교하여 가정의학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도에 있어 비교적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가정의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나고, 가정의학과가 개설되고 가정의학과 수련의가 양성되는 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Taylor. R. B : *Family Medicine. Principle and Practice. 3rd Edition, 1989*
2. Robert. E. Rakel : *Textbook of Family Practice. 4th Edition, 1990*
3. 이상화의 : 가정의학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에 관한 연구. "가정의학과 등록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의, 9-4 : 1-3, 1988
4. 문태식의 : 지역사회 주민의 가정의학 및 의료전달 체계에 대한 인식도. "송파구 지역 아파트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의, 10-6 : 2-7, 1989
5. 배철영 : 가정의학의 인식도에 관한 추적 연구.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가정의 10-4:1-7, 1989
6. 이길부의 : 일반인들의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 및 의료태도에 관한 연구. 가정의, 10-9 : 28-34, 1989
7. 윤방부 :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조사. 가정의 5-9 : 1-7, 1984
8. 조정환외 : 일부 지역사회 주민의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 조사. 가정의, 7-3 : 1-5, 1986
9. 윤방부 : 가정의학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소고. 가정의, 101 : 5 : 9, 1980
10. 이강진의 : 의과대학생들의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 조사. 가정의 3-11 : 39, 1982
11. 최현림외 : 가정의학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에 관한 조사 연구. "일부 지방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가정의, 4-11 : 39, 1983
12. 유병연외 : 가정의학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에 관한 소고. "일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가정의, 4-11 : 39, 1983
13. 윤방부 : 가정의학, 의학출판사. 초판 13-15, 1981
14. 윤방부 : 가정의학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소고, 가정의 101 : 5-9, 1980
15. 홍창외 : 가정의학의 개념. 지역사회의학, 서울대학교. 166, 1985